

미국-이란 전쟁과 걸프 왕정국가들의 미래

김 창 모

前 카타르 및 알제리 주재 특명전권대사

[기획자 註]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미국-이란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양국간 종전 협상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분명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미국-이란 전쟁을 분석하고 특히 향후 중동 정세에 미칠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서론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배후로 간주되던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2026년 2월 미국과 공동으로 이란을 타격함으로써 이스라엘·미국-이란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이 이란의 핵무장 저지와 신정 독재체제의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내세운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예상과 달리 항복하지 않고 드론, 미사일 등으로 중동내 미군기지 공격,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완강히 저항했다.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미국의 전쟁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미국내 여론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출구를 모색하면서 카타르 등의 중재하에 60일의 휴전합의로 이스라엘·미국-이란 전쟁(이하 미-이란 전쟁)은 어정쩡하게 끝이 났다. 그리고 현재에도 호르무즈 통항문제, 이란 핵문제, 이란제재 해제문제 등을 두고 양측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단기간 내에 이란 수뇌부를 제거하면 이란 정권이 붕괴되고, 이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 못한 이란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이란의 민주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이란내 많은 군사시설을 파괴하기는 했으나, 예상보다 긴 전쟁기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당초 의도한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란이 오히려 전쟁을 통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찾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을 주도하였다. 미국이 전쟁 초기에 값비싼 미사일(토마호크, 등)과 방공장비(사드, 패트리엇, 등)를 소진한 가운데 이란의 값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였고,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내 미군 기지나 GCC의 석유, 가스 시설이 타격 대상이 되어 걸프 국가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나아가, 호르무즈 봉쇄로 많은 유조선들의 발이

묵이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하게 되었고, 미국 뿐 아니라 국제 여론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미-이란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강대국과 약소국간 전쟁에서 약소국의 저항 무기로 드론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전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급하게 전쟁을 끝내려 하면서 이란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위신이 추락하고, 사우디, UAE,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등 GCC 국가들은 전쟁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에 이어 큰 피해를 입게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미국을 끌어들이어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오랜 숙원을 달성하는 듯 했으나, 이란의 대리세력인 하마스 뿐 아니라 레바논 헤즈볼라도 약화시키는 했으나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고, 이란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이란 미사일 등 군사시설 궤멸 등 의도한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미국과 함께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연립정부내 극우세력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전쟁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오던 네탄야후 정부의 미래도 불확실하게 되었다.

이란은 전쟁으로 핵 시설, 군사시설, 그리고 산업시설에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초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에서 굴복하지 않고 버텨으로써 종전협상에서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었고, 전쟁 전의 신정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민주화 욕구를 누르고 신정정치와 군부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물론 이란이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이는 전쟁 이전에도 어려웠던 이란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종전협 의 과정에서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풀고, 전쟁복구 비용의 일부를 GCC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는다면 이번 전쟁이 이란으로서는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랫동안 염원한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전쟁으로 걸프 왕정국가들은 전쟁 중에 입은 피해 뿐 아니라 호르무즈 안전항행이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누려왔던 세계 에너지 공급처로서의 위상도 흔들릴 전망이고, 석유 가스 시설이 파괴되어 탈석유시대에 대비한 산업 다변화 전략 추진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걸프 왕정국가들은 그동안 주변 아랍국가들이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통한 보조금 지급으로 국민의 민주화 욕구를 무마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석유 수입이 줄어들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보조금에 기반한 지대추구형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걸프 국가들은 왕정체제 유지에 정당성을 상실하여 정권 유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이란-미국 전쟁이 GCC 왕정국가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걸프지역 안보환경, 왕정국가들의 경제기반, 민주화 등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우리 에너지 수입의 70%를 의존하고 우리 해외건설 진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걸프 왕정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방향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걸프지역 안보환경의 변화

가. 가자전쟁 이전 미국의 대중동 정책과 이스라엘-아랍 관계 변화

트럼프 이전의 미 행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합의에 의한 2국가 해법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해온 아랍 국가들을 이스라엘과 화해시켜 팔레스타인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확장해온 기존 정착촌 등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해법을 강요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이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불리한 해법이라도 받아들일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것이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이었고, 트럼프의 평화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 아랍국가들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 국가들의 수는 기존 이집트, 요르단 포함하여 6개국으로 늘어났다. 혁신적 사고를 가진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도 이스라엘과의 수교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역사적인 이스라엘-사우디 수교협상도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동 전략 배경에는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 중동으로부터 발을 빼면서 세계적인 미-중 패권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에 두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이 있음은 물론이다.

나. 가자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영향

가자전쟁은 팔레스타인 급진세력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무고한 민간인 피해로 촉발되었지만, 이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과 5만명 넘는 민간인 학살은 하마스를 향하던 국제사회의 비난을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였다. 중동내 아랍의 반이스라엘 정서도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빈살만 왕세자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수교는 없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하마스를 뿌리 뽑으려 하였으며, 하마스 배후에 있는 이란과 이란 대리(proxy) 세력들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전장은 이란 본토와 레바논 남부 헤지볼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지볼라, 예멘반군 등의 배

후에 있는 이란을 약화시켜 이들로 부터의 위협을 없애려고 하였으며, 미국은 이 기회에 이란의 지배층을 교체하여 이란 시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지원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분쇄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초 설정한 전쟁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저지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이란이나 대리세력의 힘을 궤멸 수준으로 약화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이란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고 전쟁 복구비용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강화된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운송로에 대한 통제를 언제든지 자국 안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해 오던 걸프 왕정국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전쟁으로 걸프 왕정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에만 자국의 안보를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걸프 국가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란과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 대상이 되어 산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걸프 국가들은 기왕 시작한 전쟁이면 이란과 대리세력의 위협이 약화되는 수준에서 전쟁이 마무리되길 바랬지만 미국은 걸프 국가들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란에 양보하는 휴전에 합의하였고, 논의되고 있는 대이란 제재 해제와 동결자금 해제, 3천억불 전쟁복구 지원 등은 이란이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결과가 되었다. 나아가, 이란이 걸프 왕정국가들의 석유가스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걸프 국가들의 경제의 목줄을 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걸프 왕정 국가들이 이란이나 대리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더 대담해질 이란과 신뢰하기 어려운 미국 사이에서 걸프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안전보장 장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을 당장은 멀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란의 재무장과 호르무즈를 통한 압박이 걸프 국가들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이란과의 대결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강화 등 여러 가지 보충을 들기 위한 외교 다변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UAE의 경우 전쟁중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선언하며, 걸프 국가들과는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이미 방공 요격 시스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의 방위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지대추구형 경제기반 약화

걸프 왕정국가들은 오랫동안 막대한 석유, 가스 판매 수입으로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 국민들에게는 소득세 등 직접세를 면제하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보조금 등을 지급해 왔다. 서양에서는 불가능한 조세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를 달래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대추구형 경제의 약점은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것이다. 석유가스 산업 외에 자생적이고 경쟁력있는 산업 생태계가 발달하지 못하여 국제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국가 재정수입도 크게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걸프 왕정국가들의 석유, 가스에 의존한 지대추구형 경제 시스템은 세계적인 기후대응 노력과 탈탄소시대 대비 정책으로 이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한번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 등 걸프 국가들은 비전 2030 등 탈탄소시대를 대비한 자국의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구해 오고 있다. 비석유부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장기적으로는 석유가스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것이다. 네옴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우선 걸프 국가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석유, 가스 시설에 큰 타격을 입었다. 완전한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석유, 가스 감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줄어든 중동산 석유가스에 대한 수요가 시설 복구 후에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호르무즈가 전쟁으로 묶여 있을 때 미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아프리카 등 타 지역 석유가스 및 셰일오일이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AI기술 발달과 데이터 센터 구축 바람은 저탄소이면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을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발전이 급속히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석유가스 수요는 그만큼 더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그 동안 석유가스 운송의 30%를 담당하였던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각국의 중동산 석유가스 의존도를 더욱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걸프 6개국 모두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나, 특히 호르무즈 이외에 육상 파이프라인 등 우회 운송로가 없는 쿠웨이트,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 등에게는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석유가스 시설 피해, 불가피한 감산, 피해복구를 위한 비용지출 등으로 걸프 국가들의 산업 다변화 정책 수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앞당겨지는 탈탄소화 일정은 석유가스 수입에 의존해온 왕정국가의 지대추구형 경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왕정국가들은 그들의 부족한 국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각종 복지혜택도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전제 왕정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민주화 욕구도 더 거세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란이나 GCC 국가들의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건설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건설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안보 불안을 느낀 걸프 국가들이 안보 자립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방산품 수출에도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걸프 왕정국가들의 석유가스 산업으로 부터의 수입 감소, 정치체제의 불안정성 증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에너지 수급 관련 지금까지의 지나치게 높은 중동-걸프 지역 의존도를 줄이면서 탈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을 서두르는 일일 것이다.





저자 소개: 김창모

김창모 대사는 1991년부터 32년간 직업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교부 중동과 서기관, 환경협력과장,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2018년 이래 카타르 및 알제리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하였고, 2023년 퇴임 후에는 한국과 아랍 국가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동 기간 중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로도 활동하면서 중동문제 및 환경문제 관련 전문성을 쌓아오고 있다. 현재는 (재)기후변화센터(CCC) 이사 및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2026년 7월

저작권자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